

## 중국 교회의 새로운 도전, 3030비전 성취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월드뷰는 CBMC(한국기독실업인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래창 장로를 만나, 중국 선교 관련 최근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남부 항주와 온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3030비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김건주



박래창(朴來昶)

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CBMC) 회장이며 한국장로신문사 사장이다. 소망교회에서는 원로장로로 섬기고 있다.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이사, (재)아가페 법인이사(소망교도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법인이사, (사)기독교화해증재단 이사, (사)대한민국 국가 조찬기도회 이사(부회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닫혔던 문이 열린다

박래창 장로가 중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96년. 당시 중국은 오랫동안 굳게 닫아 두었던 문을 열고 개혁개방을 추진했다. 지금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던 시기로, 한중 수교가 맺어진 초기여서 왕래가 많지 않을 때였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기적 같은 기회를 통해 중국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중국 공산당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4박5일 간의 행사. 비행기 석 대에 400여명의 인원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 갔고, 통역 인원만 해도 100명이 동원될 만큼 큰 행사였다. 중국의 주요 언론들은 실시간으로 관련 소식을 전달했다.

사실 그 행사는 원래 계획과 전혀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많았다. 먼저 당황스러웠던 건 장소를 비롯한 모든 게 변경되었다는 사실. 이를 도착한 후에야 알게 되었으니 처음부터 정신이 쏙 빠졌다. 거기다 중국 정부의 철저한 통제 아래, 예배는커녕 찬송을 부를 수도 없었고 공동 사회 조차 할 수 없었다. 테이블마다 배치된 통역원도 사실은 감시원이었다 한다.

그런데 그 행사 덕분에 중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중국 선교를 진행하는데 있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사 덕분에 중국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선교의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후 박 장로는 중국 선교를 위해 줄고 수고해 왔다. 주로 내부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리더 양성에 집중하며,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전수하기도 했다. 짧은 기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한국의 경험과 이야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중국 전역에서 선발된 인재들이 한국을 찾았는데, 그 중에는 영관급 장교와 같은 엘리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3030비전 성취에 있어 한국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은 지금 중국 교회에게 큰 지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교회는 우리가 좋은 코치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996년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일어난 변화는 실로 엄청나서, 현재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를 이루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선교 상황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 중국에는 삼자교회, 가정교회와 더불어 기업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이 교회는 기독교기업인의 적극적인 헌신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를 이룬다. 최근 박 장로는 중국 내 기업교회와 협력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데, 온주상인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 온주상인 이야기

“우리는 온주 모험가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온주인들은 간부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각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다.” 실용주의 노선을 펼쳤던 덩샤오핑(鄧小平)이 자신의 개혁개방 정책을 충실하게 따라준 중국 저장(浙江)성 남부 온주 지역 사람들을 예찬한 말이다.

돈이 모이는 곳에는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진 4대 상인이 존재한다.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유대상인, 종교적 열정으로 누구보다 협상에 강한 아랍상인, 유창한 언어와 비즈니스 감각으로

견고한 상권을 갖고 있는 인도상인, 그리고 ‘연기가 나는 곳에는 화교가 있다.’는 말처럼 세계 곳곳에 분포한 화교상인이 바로 그들이다. 특히 화교상인은 세계 130여 개 곳에서 2조 달러 이상의 유동자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온주상인(溫州商人)이 있다.

온주상인은 척박한 자연환경에 굴하지 않고, 사회주의경제 체제하에서도 중국 각지로 뻗어나가 장사를 벌였다. 어디에 정착하건 그곳에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을 완벽하게 선점함으로써 민간경제를 장악했다. 그들의 영향력은 이제 중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전 세계 화교 경제의 가장 큰 중심축을 바로 이들 온주상인이 차지하고 있다. 200만 여명의 온주상인은 온주에 37만 명, 중국에 160만 명, 세계 각국에 100만 명이 흩어져 있다. 그 바탕에는 실리에 밝아 장사 수완이 뛰어나고, 이익이 된다 싶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국 얻어내는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다.

### 3030비전에 도전하다

온주상인의 중심을 이루는 기독교 상인들은 세계 전역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 온주와 가까운 항주는 공산화 이전 가장 왕성하게 교회가 부흥했던 지역으로, 중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렸었다. 개혁 개방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회복된 곳이기도 하다.



최근 심각해지는 세계 경제 위기는 중국에도 영향을 줘 그동안 강력한 통제 속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국 교회는 이런 사회적 변화가 도리어 선교의 황금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온주와 항주 지역 기업인을 주축으로, 중국 내 기독교기업인들은 '3030비전'에 도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중국 전체 인구의 30%를 복음화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각계계층의 엘리트와 요직에 있는 정부요원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첫 걸음의 대상은 기업인들이다. 1000만 기업인의 복음화라는 전략적 목표 아래, 그들을 기업인 선교사로 세워 3030비전을 성취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회의 전통적인 선교 방법 외에,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선교를 함께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복음을 받아들인 1000만 기업인들로 인해 10만개의 기독교기업이 생겨난다면, 다시 1억 명의 인구에 영향을 주어 복음화가 이뤄질 것이다.

인구조사 관련 국제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중국 내 기독교인 비율은 7.7%에 달한다. 이 수치는 중국 각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 내 기독교 인구는 1억 명 정도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3030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짐작해 보자. 1억의 현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통해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앞에서 밝혔듯 기업을 통해 1억 명, 그리고 그 외 선교 방법을 통해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4~5억 명을 복음화한다는 것이다.

최근 심각해지는 세계 경제 위기는 중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성장 속도는 늦춰지고 있는데, 그동안 강력한 통제 속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안정적으로 보였던 상황이 혼란과 위기로 바뀌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교회는 이런 사회적 변화가 도리어 선교의 황금기로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3030비전 성취에 있어 한국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은 지금 중국 교회에게 큰 지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교회는 우리가 좋은 코치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박장로는 CBMC를 중심으로 그들을 도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1000만 명의 기독교기업인 리더 양성 과정에서 코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더불어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세운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할 계획이다.

중국 교회의 도전과 한국 교회의 협력이 만들어 낼 멋진 복음의 앙상블을 기대해본다. **W**



김건주 문화평론가, 목사. 한양대학교,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공부했다. 20년 가까운 시간을 출판기획자, 문화사역자로 사역해 왔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에서 실행위원, CUP 출판위원, 월간 월드뷰 편집장으로 섬기고 있다.